

R-33. Astra tech implant의 성공률 및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정도에 관한 후향적 연구

안응규, 오지은, 진민주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Osseointegration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치과용 임플란트는 결손치의 수복을 위한 성공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 그의 임상적 사용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여러 종류와 형태의 임플란트가 시도되었으나 현재는 스크루 형태의 골내 티타늄 임플란트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보다 나은 osseointegration을 위해서 다양한 macro- and microscopic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Astra tech™사의 임플란트는 TiO2 blasting처리된 표면을 갖는 internal hex 형태의 임플란트이다. 특징적으로 11.5°의 morse taper를 가지는 conical seal design으로 지대주와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플란트와 지대주간의 미세동요를 줄일 수 있으며, 스크루 풀림의 문제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식체 상부에는 micro-thread가 존재하여 임플란트에 전달되는 응력이 치조골 상부에 집중되지 않아 초기 치조골 소실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한일병원 치주과에서 식립된 임플란트 중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Astra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조사로서, 환자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사진 및 임상적 관찰을 통하여 ① 환자의 유형 및 임플란트 식립부의 분포 ② 치아상실의 원인 ③ 수술에 사용된 임플란트의 type 및 size ④ 상악동 거상술 및 골유도 재생술 등의 동반 유무 ⑤ 보철물의 유형 ⑥ 성공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보철물 장착 후 2년 이상이 지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평행촬영법을 사용한 구내방사선사진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 변화를 측정하였다.